

동남아 2018: 변화의 땅, 혼돈의 바다

윤진표*

국문초록

2018년 동남아의 특징은 ‘변화의 땅, 혼돈의 바다’라는 부제로 표현될 수 있다. 변화와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2018년 동남아는 정치리더십과 선거에서 몇 가지 변화를 보여주었다. 2018년 아세안의장국인 싱가포르가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했고, 4세대 정치리더십을 선정하였다. 베트남은 공산당의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가 총서기의 국가주석직 겸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018년 선거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이후 60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야권연합의 압승으로 선거권위주의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캄보디아는 선거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였다. 훈센 정권의 지속에 선거가 이용되며 선거권위주의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태국에서는 4년여 계속된 군부통치를 문민통치로 전환하는 선거 계획이 확정되었다.

2018년 동남아의 바다에서는 혼돈 상황이 더욱 커졌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은 군사충돌까지 갈만한 사태를 여러 번 일으켰고, 상대를 비방하는 수준도 더욱 높아졌다. 일본의 해군까지 남중국해에 등장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행동준칙 채택을 위한 협상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재앙에 가까운 지진과 쓰나미, 태풍이 2018년 동남아 바다를 휘몰아쳤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입은 피해는 어느 해보다 컸다.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두 나라의 대응 체계의 문제 등 국가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재해이기도 했다.

주제어: 동남아, 선거, 남중국해, 지진, 태풍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jpyoon@sungshin.ac.kr

I. 2018년 동남아 동향

2018년 동남아의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흔히 지난 해와 비교하며 변화(change)와 지속(continu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전 시간과 구별될 만한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즉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별다른 변화없이 계속되는 측면이 강했는지, 즉 지속되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동남아는 공간적으로 땅과 바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18년 동남아의 특징은 ‘변화의 땅, 혼돈의 바다’라는 부제로 표현하고 싶다. 땅에 사는 동남아 사람들이 2018년 움직임의 결과를 갖고 변화와 지속을 보고자, 정치 분야에 초점을 맞춰 동남아 각국에서 벌어진 정치리더십과 선거 상황을 들여다 본다. 바다의 문제는 동남아와 주변국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남중국해와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2018년을 정리해 본다.

II. 변화의 땅

1. 정치리더십

2018년 한국과 관련된 동남아 최대 뉴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었다.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먼저 싱가포르는 미국과 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중립적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특히 북한과 상당히 가까운데 1975년 공식수교를 맺고 북한 대사관이 있으면서 북한의 대외경제 활동의 주요 무대이

기도 하다. 싱가포르를 미국과 가까운 것은 물론이고 미 해군의 보급과 수리기지 역할을 하는 등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행기가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에 싱가포르가 있고, 싱가포르의 강력한 치안 능력은 경호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2015년 시진핑(Xi Jin Ping) 국가주석과 마잉주(Ma Ying Jiu) 대만총통이 최초로 중국과 대만 간 역사적 정상회담을 했던 곳도 싱가포르였다. 2018년은 싱가포르에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활약과 더불어 동아시아 외교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룬 해로 기록될 것이다.

국내적으로 2018년 싱가포르는 차기 총리의 윤곽을 결정했다. 싱가포르 정치의 특성상 패권 정당인 인민행동당(PAP)의 지도부 구성이 총리 교체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인민행동당은 11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헝스위킷(Heng Swee Keat) 재무부 장관을 제1사무총장보로 선출하여 차기 총리를 사실상 확정 지었다(Geddie 2018). 싱가포르의 권력 승계는 리콴유(Lee Kuan Yew) 총리 이래 인민행동당 내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온 전통이 있고, 고척동(Goh Chok Tong)과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에 이은 4세대 지도부를 결정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헝스위킷 재무부 장관과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찬충싱(Chan Chung Sing) 통상산업부 장관은 제2사무총장보로 지명되어 차기 부총리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헝스위킷 재무부 장관은 부총리직에 오른 후 4세대 지도부 수장으로 2019년에 예상되는 차기 총선을 이끌고 리셴룽의 은퇴를 이어 4세대 총리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 동남아에서 리더십의 변화를 보인 나라가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2018년 GDP성장률 7.1%를 달성해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성장을 했다. 1인당 GDP는 2,587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2,477억 달러, 수입 2,375억 달러로 7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잘 나가는

베트남 경제와 비교해 정치적으로 2018년에는 쩌다이퐁(Tran Dai Quang) 국가주석이 사망하고 그 뒤를 응웬푸쑹(Nguyen Phu Trong)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직을 차지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집단 지도체제 방식으로 정치리더십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공산당 총서기를 정점으로, 당 서열 2위 국가주석, 정무원 총리, 국회의장 순으로 분권적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2018년 쩌다이퐁의 사망으로 공석이된 국가주석직을 응웬푸쑹 총서기가 겸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응웬푸쑹 총서기로의 권력 집중으로 그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Campbell 2018). 상대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응웬푸쑹 총서기가 펼치는 부패척결운동의 성과가 그에 대한 평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베트남은 국회가 선임한 고위지도자들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2013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신임투표였다. 하노이와 호찌민시 위원회, 공산당 정치국과 비서국에서도 신임투표가 있었다. 불신임이 없는 제한된 신임투표지만 정치리더십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베트남 정치의 변화로 보인다.

2. 선거

2018년 선거를 통해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나라는 말레이시아였다. 2018년 5월 9일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독립 이래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뤘다. 1957년 독립 이래 61년간 집권해온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중심의 여권연합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이 처음으로 야권연합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에 패배했다. 93세의 마하티르(Mahathir) 전 총리가 선봉에 선 야권연합은 하원 222석의 과반인 122석을 차지했다. 1998년 이래 지속되었던 여야 간 일대일 대결이 무산되고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 여당후보와 복수의 야

당 후보 간에 치러진 총선이었기에 야당조차 선거 압승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출범 2년 차에 불과한 희망연합(PH)이 국민정의당(PKR) 47석, 민주행동당(DAP) 42석, 사바(Sabah)주의 Warisan 8석 등 122석을 확보했다. 반면 여권연합 국민전선(BN)은 79석을 얻는데 그쳐 2013년 총선 때 획득한 133석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¹⁾ 2013년 투표율 85% 보다는 낮았지만 평일에 치러진 선거로 76%를 기록하는 투표율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높은 정치참여 의지를 보여주었다.

희망연합의 승리로 마하티르는 15년 만에 총리직에 복귀했다. 1981년부터 2003년까지 22년간 UMNO의 총재이자 총리였던 마하티르는 근대화의 국부이자 개발독재자라는 이중적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나집(Nazib) 총리의 비리로 퇴진 운동을 벌이다 UMNO에서 축출된 마하티르는 야당 지도자로 변신해 2017년 말 희망연합의 총리 후보로 추대되어 야권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다. 국민전선의 나집 총리는 2015년 국영투자회사 1MDB에서 수조 원의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에 휘말렸고, 이런 여권 수뇌부의 부정부패 의혹과 민생 악화로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 선거는 여당의 지지기반이던 농촌 지역까지 돌아서면서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고 초유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총선 승리 후 마하티르 총리는 동성에 혐의로 투옥된 야권의 실질적 지도자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전 부총리를 즉각 석방하고 사면 복권시켰으며, 2년 후 안와르에게 총리직 이양을 확인하고, 적폐청산과 과거사 진상 규명, 나집에 대한 사법처리, 중국과 싱가포르와의 불공정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1) 희망연합(PH)은 안와르(Anwar)의 PKR 47석, 중국계 DAP 42석, 마하티르의 Bersatu 13석, PAS에서 나온 Amanah 11석, 사바주의 Warisan 8석, 무소속 1석으로 함께 122석; 국민전선(BN)은 UMNO 54석, MCA 1석, MIC 2석, PBB 13석, PDP 2석, PRS 3석 등 함께 79석;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PAS는 18석.

독립 이후 61년 동안 지속된 국민전선(BN)방식의 패권적 집권연합체제가 2018년 14대 총선에서 무너지게 된 것은 ‘쓰나미 현상’의 축적 결과로 보고 있다(황인원 2018: 216). 2018년 총선은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고, 지난 20여 년간 선거를 통한 정치변동에 대한 기대가 축적된 결과로 본다. 쓰나미의 연속은 1998년 개혁 정국 이후 1999년의 ‘말레이 쓰나미’, 2008년 ‘정치적 쓰나미’, 2013년 ‘중국인 쓰나미’를 거쳐 2018년 ‘말레이시아인 쓰나미’를 통해 비로소 선거권위주의체제가 붕괴하였다고 보는 것이다(Ueda 2018). 마하티르 총리와 집권연합(PH)과의 복합적 관계가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를 형성하는 배경으로 예상한다.

2018년 선거를 통해 상대적으로 권력의 지속성을 보여준 사례는 캄보디아였다. 2018년 7월 29일 캄보디아 총선은 33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해 온 훈센(Hun Sen) 총리와 그가 이끄는 집권여당 캄보디아인민당(CCP)이 전체 의석 125석 중 1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났다.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해체하고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는 가운데 치른 총선 승리로 훈센은 5년을 더 집권하게 되었다. 캄보디아인민당의 경쟁자였던 캄보디아구국당이 강제 해산되어 총선에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신생 군소정당이 20여 석을 나눠 가졌다. 투표율은 80%를 넘겨 지난 총선 69%보다 10% 이상 높아졌다(Ellis-Petersen 2018). 이로써 야당과 언론 탄압 속에 캄보디아인민당과 훈센총리는 선거권위주의 정권을 이어가게 되었다. 훈센은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에게 정부전복 혐의를 씌워 2017년 11월 당을 강제 해산시키고 소속 의원들의 정치참여를 0금지시켰다. 훈센은 정부에 비판적인 캄보디아데일리(the Cambodia Daily)와 프놈펜포스트(the Phnom Penh Post) 등의 언론에 세금 폭탄을 매겨 폐간하거나 매각을 유도했다. 투표 보이콧 운동을 벌인 야당 세력의 바램과 달리 캄보디아 총선은 투표 강요와 금권

선거에 의한 매표 의혹이 컸다. 따라서 투표율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2018년 선거 일정을 발표하며 정치의 정상화를 예고한 나라는 태국이다. 2014년 5월 태국 군부는 망명 중인 탁싌(Thaksin) 전 총리의 여동생 잉랏(Yingluck) 정부를 무너뜨리는 1932년 이래 19번째 쿠데타를 단행했다. 빠라웃(Prayut) 육군사령관은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를 만들어 임시헌법을 통과시키고 군부통치를 시작했다. NCPO가 만든 2014년 임시헌법은 NCPO에서 선출한 2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입법회의(NLA)에서 총리를 선출했고, 빠라웃 사령관은 총리가 되었다. NCPO는 필요하면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한을 중지시키는 명령권을 보유하고 군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사면 조항도 임시헌법에 넣었다(박은홍 2018: 227-230). 2015년 4월 계엄령이 해제되고, 헌법초안위원회(CDC)가 만든 헌법안이 2016년 8월 7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비민주적 조항이 많이 포함된 헌법안에 대해 언론 비판과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시행된 국민투표는 59%의 투표율에 그쳤고, 찬성 61%, 반대 39%라는 결과로 통과되었다. 신헌법에 따른 총선 일정이 예정되었다가 푸미폰(Phumiphon) 국왕이 2016년 10월 13일 서거하자 일 년의 애도 기간이 선포되면서 모든 정치일정이 중단되었다.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로 전환된 이후 1997년 18번째 헌법, 2007년 19번째 헌법, 2016년 20번째 헌법을 공포했다. 2016년 신헌법은 총선에 의해 민간에 권력을 이양한 후 5년까지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국가위기 발생 시 군사령관, 경찰사령관이 포함되는 국가전략개혁화해위원회(NSRRC)가 행정 및 입법권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신헌법은 1980년대 사용된 1978년 헌법의 개정 복사판과 같다.²⁾ 상원은 NCPO가 250명 의원 중 244명을 지명하고

2) 1973년부터 이어진 문민정부를 1976년 유혈 쿠데타로 붕괴시킨 크리앙삭

나머지 6석은 군사령관과 육, 해, 공, 경찰사령관 등 군 고위직에 자동 배당된다. 상원은 정부 불신임권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표결로 하원을 해산시킬 수 있다. 총리 선출은 하원(500명 중 350명 지역구+150명 비례대표 선출)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비선출직 명망가도 포함된 3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하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만약 하원에서 과반수 의결 선출이 실패하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2016년 헌법의 핵심은 군부통치의 제도화를 위해 선출되지 않은 원외 총리와 임명직 상원제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군부 보수세력의 조치에 대해 개헌은 금 간 벽에 벽지를 바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³⁾

쁘라웃 총리는 2019년 2월 24일 예정대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90일이 연기되 5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고, 와치라롱컨 국왕의 대관식 날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다.(Yuda 2018). 정부는 결국 5월 초 국왕 대관식 행사를 이유로 총선을 3월 24일로 연기했다. 과거 방식인 원외 총리 선출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뿌라웃과 군부는 팔랑쁘라차랏당(Palangphrachat)을 창당해 탁실패 정당과 민주당(Prachaitipat) 의원들까지 포섭에 나서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프어타이(Pheu Thai)당과 민주당간 연대 가능성도 있고, 군부의 견제와 간섭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크다. 선거는 변형된 1인 1표 비례대표제로 인해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Kriangsak) 육군사령관이 만든 1978년 헌법은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선출직 명망가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1980년대 군 출신인 뿌렘(Prem)을 총리로 만든 헌법이었다. 2016년 헌법은 이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다.

3) 쿠데타의 주역인 군사령관이 쿠데타 이후 총리가 되는 과정도 태국의 전형적인 권력 형태가 되었다. 1950-60년대 싸릿 타나랏, 1960-70년대 타넘 끼티카친, 1970년대 중반 크리앙삭 촘마난, 1980년대 뿌렘 틴수라논, 1990년대 초 수진다 크라프랏윤, 그리고 2000년대 쏘티와 뿌라웃이 그런 예이다. 쿠데타마다 군사정권의 명칭은 1958년 혁명위원회(RC), 1971년 국가행정위원회(NEC), 1976년 행정개혁위원회(ARC), 1991년 국가평화유지위원회(NPKC), 2006년 국가안보위원회(CNS), 2014년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로 바뀌어가며 나타났지만 방식은 똑같이 진행되었다.

예상되지만 탁센계 프어타이당이 과반수에는 미달하는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등장한 소수 정당들이 프어타이당을 중심으로 연정을 구성해 하원에서 총리 선출이 가능할지, 아니면 군부의 팔랑쁘라차랏당으로 소수 정당들이 기울어져 하원의 총리 선출이 무산되고 상하 양원에서 원외 총리가 선출될지가 2019년 태국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다.

Ⅲ. 혼돈의 바다

1. 남중국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간 팽팽한 긴장관계는 2018년에도 지속되었다. 남중국해는 막대한 해저유전과 가스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해상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다.⁴⁾ 관련국간 갈등과 충돌의 배경이 되는 영유권 문제는 2002년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에 '남중국해에서 당사국 행동규칙에 관한 선언(DOC: Declaration of Conduct)'으로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으나 2009년 이후 중국의 무력시위 등 군사행동이 증

4) 남중국해의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에 대한 분쟁은 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시사군도(중국), 호양사군도(베트남)는 15개 섬과 5개 산호 환초, 5개 사주, 4개 모래톱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한다. 파라셀군도는 1974년 중국이 무력 점령한 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 중국어로는 난사군도), 썬영사군도(베트남)는 11개 섬, 6개 사주, 105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실효 지배 숫자는 중국 7개, 대만 1개, 베트남 29개, 필리핀 9개, 말레이시아 6개이다. 대만은 가장 큰 섬인 타이핑타오(平島)를 지배하고 있다. 스카보러섬(Scarborough Shoal, 중국어로는 황옌다오)은 수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2년 중국이 점령한 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가하며 동남아의 대표적인 안보이슈로 등장했다. 중국은 아세안과 2011년 ‘남중국해 당사국간 행동원칙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다가가는 자세를 보였지만 그 후 별다른 외교 협상이 진전되지는 못했다.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는 영토주권에 대한 집착, 중화민족주의의 고취,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부상의 선행적인 실행 의지,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다양한 분석이 있다(윤진표 2016: 315-319).

동남아 국가들에게 남중국해문제는 당사국간 양자주의 채널과 더불어 아세안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 등 주요 의제가 되었다. 아세안은 1992년 ‘남중국해 선언’을 발표하여 관련국들이 남중국해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2002년 아세안과 중국 간 ‘남중국해 당사국간 행동규칙에 관한 선언’은 남중국해문제를 중국과 아세안 개별 회원국 간 양자 문제에서 지역차원의 다자적 접근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세안 회원국 간 남중국해문제를 둘러싼 이해충돌은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2012년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일 때 남중국해문제에 대해 아세안 분쟁당사국보다 중국을 보다 배려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아세안정상회담 최초로 의장성명서가 도출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제33차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의장국인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중국과 미국 관계가 안정화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시했다. 아세안은 두 강대국 간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되면 부정적인 후폭풍을 피해갈 수 없다. 2018년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무역과 안보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노골적으로 드러났

고, 결국 공식성명서 채택없이 끝나고 말았다(Tarabay 2018).

2018년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였지만 내재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력 경쟁의 현상인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거칠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한 중국의 9단선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한채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관할권 확보가 자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천명한다.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남중국해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배권 확보는 석유, 가스 및 수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 것이고, 남중국해에서 해양 경쟁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2005년 이래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에 항공기와 미사일을 배치하는 군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시진핑국가주석은 남중국해를 대만, 신장과 티베트처럼 중국의 핵심국익이 걸린 지역으로 표현한다.

2018년 6월 시진핑은 중국을 방문한 미국 매티스(Mattis) 국방장관에게 중국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식 몬로독트린을 선언한 것과 같다(Gibbons-Neff 2018; Teo 2018). 시진핑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는 세력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 대외전략으로 격상된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을 본격화하면서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대한 경제적, 전략적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3월 5일 미국의 칼 빈슨 항공모함(USS Carl Vinson)이 베트남 다낭(Da Nang)에 입항했다. 1975년 베트남전쟁 종료 후 43년만의 입항이었다(Beech 2018). 2018년 4월 24일 괌(Guam)에서 이륙

한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남중국해를 비행했다. 대만과 필리핀 사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 북부까지 접근한 후 회항했다. 2018년 5월 27일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USS Ronald Reagan) 전단이 남중국해를 항해했다. 항모 전단의 이지스 순양함 안티탐(Antietam)과 이지스 구축함 히긴스(Higgins)는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12해리 안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펼쳤다. 중국은 파라셀군도에서 군사시설 건설을 위해 만든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연안국의 과도한 해양 관할권 주장 시 군함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9월말 미 구축함 디케이터(Decatur)와 중국 군함 뤼양(Lyuyang) 간에 40m 거리 충돌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디케이터함은 국제해상로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권을 주장하였고, 뤼양함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주장했다(Perlez 2018). 이 사고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2018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무역전쟁과는 전혀 양상이 다른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9월말 일어났던 양국 군함간의 초근접 조우사건은 두 나라간 정책충돌의 한 사례일 뿐이다. 9월 사고와 같은 안전하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조우는 2016년 이래 18차례나 있었으며 언제든 재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권 강화의 일환으로 조만간 이 지역 상공에 대한 방공식별구역(ADIZ)선포를 고려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4일 미국 펜스(Pence) 부통령은 중국의 외교정책을 권위주의적 팽창과 위협이라며 비난했다. 미국은 2010년 ARF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개입할 것을 선언했고, 2017년 취임한 트럼프(Trump)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표현하며 중국의

패권 부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전례없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기지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선언하고,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QUAD)를 출범시키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제기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은 자유주의적 규범과 항행의 자유 등 규칙적 가치와 해상안보, 해양협력 및 해상수송로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해양중심의 지역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2018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및 ‘2018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중국을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기존의 규칙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장기 전략 경쟁을 최대의 안보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태평양사령부의 이름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하는 등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전략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의 발표와 함께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범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QUAD)는 당장 높은 수준의 대중국 안보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안보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제안에 인도와 호주가 동의한 것이다(Hussain 2018).

일본은 석유와 가스 등 거의 모든 에너지 자원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통해 수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생명선과 같은 해역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2014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

중국해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자 일본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18년 9월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항모인 카가(加賀)가 이지스 호위함과 함께 남중국해에 파병됐고, 사상 최초의 대 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무력시위였다. 일본은 남중국해의 자유항해 의지를 중국에게 보여주고자 했다(Rich 2018). 일본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해양경찰용 순시선을 판매했다. 한편 일본 아베(Abe) 수상은 2018년 10월 중국을 방문해 7년만의 최고위급 회담을 하고 중국과의 양자 유대관계를 확인하는 회담을 했다.

2007년부터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주창해 온 일본은 최근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및 규칙기반 질서 유지의 중요성,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계하는 인프라 개발 등 역내 연계성 강화, 아세안 및 인도양 지역 국가들의 해상안보·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능력배양 지원 강화 등이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미국과 함께 인도와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 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베트남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 폐쇄와 미사일 등 전략무기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해상 봉쇄, 미사일 발사대 등 공격형 무기 배치 등 중국이 취한 조처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남중국해 당사국간 행동준칙(COC, Code of Conduct)을 원한다고 알려졌다. 베트남은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해운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으려 하고 있다(Reuters News Agency 2018). 이러한 주장으로 2019년 타결을 목표로 물 밑에서 추진 중인 아세안과 중국 간

남중국해 당사국간 행동준칙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COC는 중국과 아세안이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당사국간 행동선언(DOC)의 후속 조치로 당사국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게 된다. 중국과 아세안은 2017년 8월 외교장관회의에서 COC 초안 채택에 합의하고 2018년 3월부터 협상에 착수했다. 2019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은 COC 타결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 쓰나미와 태풍

2018년은 ‘불의 고리(the 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유난히 심하게 발생한 한해였다. 2018년 1월 23일 인도네시아 자바(Java)섬 반텐(Banten)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6.1로 측정되었다가 5.9로 축소되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수십 초 간 강한 진동을 느꼈고, 이 지진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4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8년 7월 29일 롬복(Lombok)섬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6.4였다. 롬복섬 북쪽의 린자니(Linjani)산 북동쪽 자락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원은 지하 14km였다. 이 지진으로 최소 564명이 숨지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레만인 8월 5일 롬복섬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재차 발생했고, 8월 19일 규모 6.9의 지진이 계속되었다. 미국지진감시국에서는 8월 5일 지진과 비슷한 지진이라 발표했지만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이 지진이 8월 5일에 일어났던 지진의 여진이 아닌 다른 단층에서 다른 메커니즘으로 일어난 독립된 지진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9월 28일 술라웨시(Sulawesi)섬 팔루(Palu)시 인근 해저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팔루와 인근 동갈라(East Gala)일대에 1.5~2m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팔루공항 관제탑

이 파손되고 활주로에 400~500m 길이의 균열이 발생하여 공항이 폐쇄되었다. 지진으로 팔루시 시내 8층 호텔이 무너지면서 대피하지 못한 투숙객들이 잔해에 깔렸다. 지진이 발생한 뒤에도 고지대로 신속히 대피하지 않아 쓰나미에 휩쓸린 사람들이 많았다. 팔루시 해변에서는 축제 준비를 하다가 수백 명이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쓰나미에 휩쓸렸다. 이 지진 쓰나미로 인해 팔루시 공무원 다수가 사망했고, 심지어 현직 시장과 부시장까지 희생되어 사태를 수습할 사람마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지진이 일어난지 34분도 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를 해제하여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0월 2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진과 쓰나미 사망자 수가 2101명, 실종자 수가 1373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진의 영향으로 지하수가 올라와 땅이 물러지는 지반 액상화 현상까지 발생해 다수 마을이 통째로 땅에 묻혀버려 인명피해 규모는 정확히 집계조차되지 않았다(Fountain 2018).

2018년 12월 22일 오후 9시 27분 인도네시아 순다(Sunda)해협에서 해변을 덮치는 쓰나미가 발생했다. 당국은 429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843명, 실종자는 28명이라고 발표했다. 최고 3m 높이의 쓰나미는 순다해협 주변 내륙 15~20m까지 밀어닥쳤다. 쓰나미 발생은 지진 활동 등 다른 전조 없이 갑자기 발생했는데, 이는 순다해협에 있는 작은 화산섬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의 분화로 영향을 받은 해저 산사태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쓰나미 높이가 평균 0.3~0.9m 수준으로 비교적 작았지만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사리를 맞아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Suhartono 2018). 아낙 크라카타우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였지만 2018년 6월부터 활동이 활발해져 소규모 분화를 반복해 왔다. 특히 쓰나미 발생 당일인 12월 22일 오후 5시 22분께 비교적 큰 분화를 일으켜 정상에

서 1천500m 높이까지 연기를 뿜어냈고 9시 3분에 재차 크게 분화했다.⁵⁾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었다. 2019년 1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2018년 관측된 지진을 1만1천577건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2017년 7천172건보다 4천건 이상 늘어난 숫자다. 규모 5.0 이상의 비교적 강한 지진은 297건이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2018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2천500여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최소 4천23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 10여년 내 최악의 규모라고 발표했다.

2018년 필리핀은 유난히 태풍의 피해를 많이 당했다. 9월 15일 슈퍼태풍 망콧(Mangkut)이 상륙해 100여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다. 중심기압 905hPa, 최대풍속 56m/s 의 초대형 태풍 망콧은 2018년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2호 태풍 망콧은 필리핀과 홍콩을 강타하며 사상자가 속출했다. 재산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9월 7일 괌 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망콧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9월 15일 필리핀 북동부를 강타했다. 900km에 달하는 비구름대를 동반한 망콧은 5등급 허리케인에 해당 하는 시속 305km로 필리핀 북부 루손(Luzon)섬 카가얀(Cagayan)주를 휩쓸고 지나갔다. 강력한 돌풍과 폭우가 쏟아지며 40곳 이상에서

5)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사이 순다해협에 위치한 작은 섬인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는 ‘크라카타우의 자식’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전신이었던 해발 813m 크라카타우(Krakatau)화산이 1883년 8월 27일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솟아난 섬이기 때문이다. 당시 크라카타우 화산은 상공 20km까지 연기 기둥을 뿜어 올렸고, 4천500km 이상 떨어진 모리셔스와 호주에서도 들릴 만큼 엄청난 폭음을 냈다고 전해진다. 크라카타우 화산이 있던 크라카타우 섬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사라진 이 폭발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3만6천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또 기후를 교란해 수년간 세계 곳곳이 기근을 겪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낙 크라카타우는 45년만인 1928년 해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며 매년 수 m씩 높이를 더해 현재 해발 338m까지 커졌다.

산사태가 발생하고 밀려드는 토사로 주택 등 건물이 붕괴하고 도로와 다리가 끊기는 등 참사 수준의 피해가 잇달았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었던 카가안주 투게가라오(Tugegarao)시는 도시의 크고 작은 건물 대부분이 강풍과 폭우에 부서졌다. 루손섬 한 주민은 “세상의 종말을 느꼈다”며 망콧의 위력을 표현했다(Cappucci 2018; Griffiths 2018).

인명피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루손섬 벵게트(Benguet)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광부 숙소를 덮쳐 34명이 사망하고 36명이 실종됐으며, 바기오(Baguio)시에서도 산사태 피해 생존자를 수색하던 구조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안 저지대와 섬 주민 82만 40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10만 5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필리핀을 휩쓴 태풍 망콧은 9월 16일 홍콩을 강타하며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강력한 바람에 고층 건물의 창문이 부서지거나 통째로 떨어져 나가고, 가로수가 뽑히면서 20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마카오는 망콧의 위력에 사상 처음으로 카지노를 폐쇄했다. 망콧은 9월 17일 베트남 하노이 북동쪽 육상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하며 소멸했다.

사이판을 할킨 태풍 위투(Yutu)가 10월 30일 중심기압 950hPa, 최대풍속 44m/s의 위력으로 필리핀 루손섬을 관통하면서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매몰되거나 실종됐다. 루손섬 북부 나토닌(Natonin)시 산악지대에 위치한 공공사업부 지역사무소 건물이 산사태로 매몰됐고, 직원과 마을주민을 포함한 최소 31명이 매몰됐다. 필리핀 북부 이푸가오(Ifugao)주에서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일가족 네 명이 무너져 내린 토사에 깔려 사망했다. 태풍 위투는 최대풍속 시속 230km에 달하는 강한 돌풍을 일으켜 카우아얀(Cauayan)공항의 지붕을 날렸다. 수백 채의 가옥이 훼손됐고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져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 1만7000명에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수도 마닐라에도 강풍이 불어

선박 수백 대가 출항을 멈췄고 승객 1000여 명의 발이 묶였다. 태풍 위투는 9월 30일 오후 필리핀 서쪽 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위투는 2018년 필리핀에 상륙한 18번째 태풍이었다. 9월 슈퍼 태풍 망콧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재차 피해를 당했다.

2018년이 끝나가던 12월 30일 태풍 우스만(Usman)은 필리핀 중부를 동서로 관통하며 비사야(Bisayas)군도 등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산사태와 홍수로 56명이 죽고 11명이 실종되었다. 폭우로 가옥이 침수되고 강물이 범람하는 등 5만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다. 강풍으로 나무가 뽑히거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정전 사태도 속출했다. 폭풍의 영향으로 여객선 운행이 중단되면서 필리핀 전역의 항구에서 수천명의 발이 묶였다. 필리핀은 매년 20개 이상의 태풍이 강타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2018년 몰아친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만 양국의 정치경제에 던지는 의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진과 태풍을 매년 계속되는 연중 행사같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보고있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안일한 대응 자세를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아세안(ASEAN)은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를 동남아의 인간안보문제 중 주요한 초국가적 이슈로 설정하고 아세안공동체 건설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가자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예측과 예방 및 재난구호 대처 능력을 키우는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V. 2018년 동남아를 돌아보며

2018년 동남아는 정치적으로 여러 변화를 보여준 한 해였다. 2018

년 아세안의장국이었던 싱가포르가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아세안 역내 협력에서 두드러진 리더십을 보였고, 국내적으로 4세대 정치리더십을 선정하는 성과도 이뤘다. 베트남은 공산당의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가 총서기의 국가주석직 겸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018년 가장 극적인 동남아 정치의 변화는 선거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60년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야권연합의 압승으로 선거권위주의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과정을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다. 선거가 형식화되어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했다. 훈센 정권의 지속에 선거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선거권위주의의 모습을 확인했다. 태국에서는 4년여 계속된 군부통치를 문민통치로 전환하는 선거 계획이 확정되었다. 비민주적 내용으로 퇴보한 2016년 헌법으로 치러질 2019년 총선거지만 태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동남아의 바다는 혼돈 상황이 더욱 컸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은 군사충돌까지 갈만한 사태를 여러 번 일으켰고, 상대를 비방하는 거친 외교 수사만 남발되었다. 일본의 해군까지 남중국해에 등장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간 행동준칙 채택을 위한 협상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 남중국해 문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기 싸움이자 21세기 신냉전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에 가까운 지진, 쓰나미, 태풍이 2018년 동남아 바다를 휘몰아쳤다.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입은 피해는 어느 해보다 컸다. 불의 고리와 기후변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두 나라의 대응 체계의 한계 같은 국가 능력의 민낯이 드러난 재해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 박사명. 2018. “동남아의 정치경제 2017” 『동남아시아연구』 28(1): 1-20.
- 박은홍. 2018. “2017 타이: 짜릿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동남아시아연구』 28(2): 213-247.
- 윤진표. 2016. 『현대 동남아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 황인원. 2018. “말레이시아 선거권위주의 체제 붕괴의 정치적 함의: 2018년 14대 총선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8(3): 213-261.
- Beech, Hannah. 2018. “U.S. Aircraft Carrier Arrives in Vietnam, With a Message for China”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world/2018/03/04> (검색일: 2018.12.15)
- Campbell, Charlie. 2018. “Vietnam Begins Life Under New Strongman President Nguyen Phu Trong” *The Time* <https://www.timeinc.net/2018/10/24> (검색일: 2018.12.15)
- Cappucci, Matthew. 2018. “Super Typhoon Mangkhut, 2018’s Strongest Storm, to Slam into Philippines”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2018/09/14> (검색일: 2019.01.03)
- Ellis-Petersen, Hannah. 2018. “Cambodia: Hun Sen Re-elected in Landslide Victory After Brutal Crackdow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2018/07/29> (검색일: 2018.12.5.)
- Fountain, Henry. 2018. “Indonesia Tsunami’s Power After Earthquake Surprises Scientist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world/2018/10/01> (검색일: 2019.01.04)
- Geddie, John. 2018. “As Singapore Enters Twilight of Lee Era,

- Ruling Party Prepares for Change” *Reuters* <https://www.reuters.com/2018/11/26> (검색일: 2018.12.20)
- Gibbons-Neff, Thomas. 2018. “China Won’t Yield ‘Even One Inch’ of South China Sea, Xi Tells Matti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06/27> (검색일: 2018.12.18)
- Griffiths, James. 2018. “Philippines Lashed by Typhoon Mangkhut, Strongest Storm This Year” *CNN*. <https://www.cnn.com/asia/2018/09/15> (검색일: 2019.01.04)
- Hussain, Nazia. 2018. “Indo-Pacific Concept: Juggling for Clarity” *RSIS Commentary* No.216.
- Perlez, Jane. 2018. “U.S. and China Are Playing ‘Game of Chicken’ in South China Sea”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09/18/world>. (검색일: 2018.12.11)
- Reuters News Agency. 2018. “Vietnam Seeks to Curb Beijing’s South China Sea Actions” *Aljazeera*. <https://www.aljazeera.com/2018/12/31> (검색일: 2019.01.04)
- Rich, Motoko. 2018. “With a Submarine, Japan Sends a Message in the South China Sea”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09/18/world>. (검색일: 2018.12.11.)
- Suhartono, Makita. 2018. “Tsunami in Indonesia Kills Over 280, With No Warning or Quake”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12/24> (검색일: 2019.01.04.
- Tarabay, Jamie. 2018. “Xi and Pence Stake Out Trade Positions in Dueling Speeches at Pacific Rim Forum”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11/17/world> (검색일: 2018.12.27)
- Teo, KB. 2018.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Making of a New

Cold War?” *RSIS Commentary* No. 209.

Ueda, Michio. 2018. “Malaysia’s New Political Tsunami” *The Diplomat* <https://www.thediplomat.com/2018/05/12> (검색일: 2018.11.30).

Yuda, Masayuki. 2018. “Countdown to Thai Election Starts as Voting Law Takes Effect” *Nikkei Asian Review* <https://www.asia.nikkei.com/politics/2018/12/10> (검색일: 2018.12.10)

(2019.01.14. 투고, 2019.01.24. 심사, 2019.02.12. 게재확정)

<Abstract>

Southeast Asia 2018: Land of Change, Sea of Chaos

YOON Jinpyo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characteristics of Southeast Asia in 2018 can be described under the subtitle 'Land of Change, Sea of Chaos.' In terms of change and continuity, Southeast Asia showed some changes in its political leadership and elections in 2018. Singapore, the head of ASEAN, hosted the North Korea- U.S. summit in 2018, and selected a fourth-generation political leadership. Vietnam has been observed as the traditional Communist Party's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has changed to the national presidency of the General Secretary. Through the 2018 general election, the regime was replaced 60 years after its independence in Malaysia. The landslide victory of the opposition alliance witnessed the collapse of the traditional power and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Cambodia was a case in which elections were used as a means of extending power. The election was used for the continuation of the Hun Sen regime and the appearance of electoral authoritarianism was confirmed. In Thailand, a four-year-old election plan to transform military rule into civilian rule has been finalized.

Chaos situation has become even bigger in the waters of Southeast Asia

in 2018.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and the U.S. have caused several incidents that could lead to military conflicts, and the level of slander has been even higher. Japan's navy also appeared in the South China Sea. Negotiations to adopt the code of conduct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also not made much progress. A catastrophic earthquake, tsunami and typhoon swept the waters of Southeast Asia in 2018. The damage inflicted by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was greater than in any other year. In some ways, it was a disaster that showed the limits of the nation's capabilities, including the problems of the two countries' response systems.

Key Words: Southeast Asia, Election, South China Sea, Earthquake, Typhoon, Singapore, Malaysia, Cambodia, Vietnam, Thailand, the Philippines, Indonesia

